



『미국 주식 투자의 정석』

**Q. 미국 주식을 처음 어떻게 접하게 되셨고,
또 어떻게 공부를 시작하셨는지 궁금합니다.**

A.

저는 원래 **호텔리어**로 커리어를 시작했습니다. 첫 직장은 2000년, 미국 캔자스시티에 있는 **하얏트 리젠시 호텔**이었고요. 미국에서 일을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주식 투자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그 당시에는 소액으로 트레이딩 정도만 했습니다.

진지하게 **장기 투자**를 시작한 건 **2020년 팬데믹**이 계기였습니다. 당시 저는 **인도네시아**에서 프랑스 계열 체인 호텔 두 곳의 **총지배인**으로 근무 중이었는데,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가장 먼저 타격을 받은 업종이 항공사, 호텔, 여행업이었습니다. 결국 제가 운영하던 호텔도 문을 닫게 되었고, 제 월급도 **80%**를 **자진 삭감**해야 했습니다.

그전까진 미래에 대한 걱정이 거의 없었지만, 처음으로 **노후와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당시 제 나이는 **46세**였고, 팬데믹 전까지는 앞으로도 20년 가까이 총지배인으로 일하면서 경제적으로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그 생각이 완전히 깨졌습니다.

그때부터 '이제는 절대 실패하면 안 된다'는 마음으로 **미국 주식 투자**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고, 동시에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공부를 하다 보니, **한국인 투자자를 위한 미국 주식 정보**가 너무 부족하다는 걸 절감하게 되었죠. 대부분의 정보는 영어로 된 미국 사이트에만 존재했기 때문에, 접근 자체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리서치하고 분석한 내용을 **유튜브**로 공유하기 시작했고, 그것이 바로 지금의 '**미주는**' 채널을 만들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Q. 마흔여섯이라는 나이에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텐데, 당시 그런 점은 전혀 걸림돌이 되지 않았나요?

A.

사실 많은 분들이 새로운 것을 시작하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십니다. 저 역시 마흔여섯이라는 나이가 결코 적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니다. 하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 인생의 방향이 크게 바뀌는 사건들을 여러 번 겪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첫 직장이 미국 캔자스시티였던 것도 제가 원해서 된 것이 아닙니다. 대학 3학년 때 IMF 외환위기가 터지면서, 선배들이 대거 취업에 실패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저는 한국 경제가 매우 좋았던 시기에 대학을 다녔기에, 좋은 학교만 나오면 누구나 대기업에 취업할 수 있을 것이라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은 순식간에 무너졌고, 한국에서 취업이 어려워지자 자연스럽게 **해외 취업**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바닥부터 시작했습니다. **전화 교환수, 웨이터, 그리고 프론트 오피스 에이전트** 등 호텔 내 다양한 직무를 거치면서 경험을 쌓았습니다. 이렇게 원하지 않았던 방향으로 인생이 전개될 때마다, 저는 거기에 **적응하고 대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또 하나의 큰 전환점은 **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였습니다. 당시 저는 영국에 살고 있었고, 미국 생활을 마친 뒤 10년 가까이 영국에서 지내고 있었는데, 그때 다니던 호텔에서 **정리해고**를 당했습니다. 당시 전 세계적으로 호텔업계가 어려워졌고, 저 역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결국 한국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고, 그때 프랑스 계열의 호텔에 입사하게 되면서 **총지배인**까지 승진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 인생에서 두세 번 정도 **예상치 못한 방향 전환**이 있었고, 그때마다 최선을 다해 적응하고 도전했던 경험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팬데믹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냥 시간을 흘려보내기보다는 넷플릭스를 보는 대신 뭔가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채널을 열게 되었고, 운이 좋게도 많은 분들이 **미국 주식시장**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저 역시 그 흐름 속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Q. 『미국 주식 투자의 정석』에서 언급하신 것처럼, 실패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럴듯한 투자 조언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

『미국 주식 투자의 정석』이라는 제목을 가진 책이지만, 이 책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더 중요한 메시지는 우리가 정석이라고 믿고 따르는 몇 가지 잘못된 투자 조언들을 먼저 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떨어질 때마다 평단가를 낮춰라”는 조언입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마이너스인 종목을 추가 매수하면 결국 수익이 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는 매우 위험한 착각입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자기 중심으로 사고하는 경향이 강하고, 주식 수익률 역시 마치 자신이 주도하는 것처럼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그래서 “팔기 전까지는 손실이 아니다”라는 말도 흔히 하죠. 그러나 이는 이론적으로 전혀 맞지 않는 말입니다.



주식시장은 매일 아침 9시 30분에 열고, 오후 4시에 닫습니다. 즉, 수익률은 매일 리셋됩니다. 전날 어떤 주식을 가지고 있었든, 다음 날도 그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면 그날 아침 다시 0에서 새롭게 베팅을 하는 것입니다. 연속성이 있다고 착각할 수 있지만, 사실상 매일 독립적인 베팅을 반복하는 셈입니다.

이 개념을 보다 쉽게 이해하려면 카지노의 룰렛 게임을 생각해 보면 좋습니다. 가장 수익을 내기 쉬운 베팅 방법은 룰렛의 0~36 중 하나의 숫자에 베팅하는 게 아닌 검은색, 빨간색, 또는 홀수, 짝수에 베팅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홀짝에 베팅하면 이길 확률이 50% 확률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양쪽 모두에 포함되지 않는 0이 포함되어 승률은 47.4%가 됩니다.

이처럼 미묘한 확률 차이가 반복되면, 카지노는 엄청난 수익을 만들어냅니다. 주식 투자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는 매일 시장이 열리고 닫히는 동안 수많은 독립적인 베팅을 반복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베팅하는 선택의 확률을 어떻게든 50% 이상으로 만들 수 있을까를 끊임없이 고민해야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심리적 오류가 있습니다. 룰렛에서 37번 연속으로 특정 숫자에 베팅했다면, 많은 사람들은 “이제는 나올 때가 됐다”고 생각하며, 그 다음 베팅의 승률이 높아졌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여전히 2.7%의 확률일 뿐입니다. 앞선 실패의 횟수는 다음 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착각은 주식 투자에서도 자주 나타납니다. 많이 떨어진 주식은 이제 오를 때가 됐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주가가 하락했다는 것은 대개 하락할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며, 그렇기 때문에 다음 날에도 하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계속 상승하는 주식은 상승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가 많으며, 어제 오른 주식이 오늘도 오를 확률이 더 높습니다.

많은 분들이 주식을 매수할 때, 가장 손실이 큰 종목을 먼저 살펴보고, 그것을 추가 매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는 두 가지 큰 실수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개인 수익률과 기업의 투자 가치 사이에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테슬라 주식을 보유 중이고 수익률이 -20%라 하더라도, 그것은 나의 매수가일 뿐이지 기업의 현재 가치와는 전혀 무관합니다.

두 번째는 주식의 싸고 비쌈을 잘못 판단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가가 떨어지면 “이제 싸졌으니 살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주식이 싸다는 판단은 밸류에이션, 즉 기업의 순이익과 시가총액을 비교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PER(주가수익비율), 나아가 PEG(성장률 반영 PER) 등을 통해 판단해야 하죠. 단순히 본인의 손실율이 크다는 이유만으로 매수 결정을 하는 것은 지극히 주관적인 판단일 뿐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의 목표는 50%가 넘는 확률의 투자 결정을 반복해서 누적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카지노처럼 부자가 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손실이 클수록 무작정 추가 매수를 하게 되면, 오히려 그 목표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떨어질 때마다 평단가를 낮추는 전략은 이런 관점에서 매우 위험하며, 반드시 다시 생각해봐야 할 투자 조언입니다.

Q. 『미국 주식 투자의 정석』에서 포트폴리오가 성공적인 투자에 있어 핵심이라고 강조하셨는데, 미국 주식 시장에서 안정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 전략은 어떻게 구성해야 할까요?

A.

포트폴리오 전략과 관련해 두 가지 핵심적인 메시지를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한두 종목에 집중 투자하지 말고 분산 투자를 하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집중 투자야말로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방법”이라고 주장하시지만, 이는 확률적으로 매우 위험한 접근입니다. 예를 들어 2023년이나 2024년에 NVIDIA에 올인했다면 성공했겠지만, 반대로 테슬라에 집중 투자했다면 다른 사람들은 100%, 150% 수익을 내는 와중에 혼자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했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투자는 확률의 게임이고, 한두 종목에 베팅하는 방식은 그 확률을 스스로 낮추는 것이므로 추천드리기 어렵습니다.

둘째, 분산 투자는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전략이 아니라 리스크 관리의 수단이라는 점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흔히 투자에서 ‘리스크’라고 하면 손실을 의미하는 것으로 오해하시는데, 금융에서 말하는 리스크는 변동성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비트코인이 과거에 큰 상승을 보여줬다고 해서 “왜 위험하냐”고 묻는 분들도 있지만, 리스크가 크다는 말은 단순히 하락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 아니라 상승과 하락의 폭이 크다, 즉 변동성이 크다는 뜻입니다.

한국 투자자들은 특히 **테크주나 성장주에 대한 선호도가 높다** 보니, 자연스럽게 변동성을 낮추는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변동성은 단순한 수치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인간의 뇌는 **긍정적인 자극보다 부정적인 자극에 더 크게 반응**하도록 진화해왔습니다. 같은 30%의 수익보다 30%의 손실이 주는 심리적 충격이 훨씬 크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인간의 **감정 구조는 주식 투자에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포트폴리오가 일시적으로 30% 올랐을 때는 담담하게 반응하다가, 30% 하락했을 때는 극심한 불안과 공포를 느끼게 되는 것이죠. 이런 감정은 결국 **비이성적인 투자 결정**으로 이어지며, 이는 곧 성공 확률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습니다.

예를 들어, 주가가 하락했을 때 공포심에 매도한 후 다시 오르더라도 재매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이 한 번 매도했던 종목이라는 이유만으로 다시 사지 않는 것은 **이성적인 판단이 아닌 감정적인 반응**입니다. 결국 이런 감정 개입이 누적되면, 장기적으로 투자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최소 **10종목에서 20종목 정도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분산 투자**를 권장드립니다. 이렇게 구성하면 어떤 날은 보유 종목 중 절반 이상이 하락할 수도 있지만, 동시에 오르는 종목도 있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구조는 포트폴리오 전체의 **변동성을 완화**하고, 투자자의 감정적 반응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포트폴리오와 관련해서 한 가지 더 드리고 싶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 그리고 감정적인 판단이 아닌 이성적인 판단을 유지하기 위해 포트폴리오를 구성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보통 22종목에서 23종목 정도를 꾸준히 보유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포트폴리오를 갖췄다고 해도, **어떻게 운영하느냐**는 또 다른 중요한 과제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종목 수를 늘려도 일부는 계속 오르고, 일부는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추가로 자금을 투입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월급에서 더 이상 여유가 없거나, 은퇴 등으로 인해 현금 유입이 없는 경우, 결국 보유한 종목을 정리해 새로운 종목으로 교체해야 합니다. 이때 흔히들 **오른 종목은 고점에 도달했다고 판단하여 매도**하고, **떨어진 종목은 저점이라고 판단하여 추가 매수**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미국 주식 투자의 정석』에서도 이와는 **정반대의 전략**을 주장했습니다.

제가 아시아 총괄대표로 활동하고 있는 시킹알파(Seeking Alpha)는 정량적 분석, 즉 **퀀트 분석**을 통해 각 종목의 투자 가치를 평가하는 플랫폼입니다. 이 시스템은 다섯 가지 지표—**밸류에이션, 성장성, 수익성, 모멘텀, 실적 전망 추세**—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그 시스템을 설계한 담당자와 직접 대화를 나누며 물었습니다. 이 다섯 가지 항목에 동일한 비중을 두느냐고요. 그의 대답은 “아니다”였습니다. 실제로는 **밸류에이션과 모멘텀**이라는 두 항목에 더 높은 가중치를 둔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에서도 특히 **모멘텀의 중요성**은 저에게 큰 인상을 남겼습니다. 과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백테스트 결과, **모멘텀이 강한 종목이 향후 6개월에서 1년간 가장 좋은 수익률을 보였**다는 분석이 나온 것입니다. 말하자면, **오르고 있는 주식은 계속 오를 가능성이 높고, 떨어지는 주식은 계속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이 점은 실제 연구에서도 확인되었습니다.

2024년에 발표된 한 연구에서는 2001년부터 2024년까지 S&P500에 포함된 종목을 대상으로 세 가지 전략의 수익률을 비교했습니다.

1. **주가 모멘텀 전략**: 수익률 상위 30% 종목은 계속 매수하고, 하위 30% 종목은 지속적으로 매도
2. **52주 고점 모멘텀 전략**: 52주 고점에 가까운 종목만 계속 매수하고, 떨어진 종목은 매도
3. **S&P500 단순 보유 전략**

모멘텀의 중요성

실증 연구 (2001-2024, S&P500 기준)

전략	수익률 (2001-2024)	특징
주가 모멘텀 전략	1265%	상위 30% 매수 / 하위 30% 매도
52주 고점 전략	약 887%	고점 근접 종목 매수 / 이탈 종목 매도
S&P 500 단순 보유	약 520%	종목 유지 / 리밸런싱 없음

그 결과, 주가 모멘텀 전략은 1265%, 52주 고점 전략은 약 887%, S&P500은 약 520%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수익률뿐 아니라, 최대 하락 구간에서도 손실이 더 적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모멘텀 전략이 수익률과 안정성 면에서 모두 더 우수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결과는 특히 테크주와 성장주를 선호하는 한국 투자자들에게는 이 전략이 더욱 적합합니다. 우리는 종종 "좋은 기업인데 주가가 빠졌으니 다시 오를 것"이라 판단하고 매수하지만, 이러한 접근은 워렌 버핏식 가치 투자에서 비롯된 착각일 수 있습니다. 가치 투자에서는 **내재 가치보다 낮은 주가**를 가진 '가치주'를 사서, 언젠가는 주가가 가치를 따라 올라갈 것이라는 믿음을 바탕으로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성장주에 투자할 때 발생합니다. 대부분의 성장주는 이미 **내재 가치보다 주가가 높은 상태**에서 거래됩니다. 그러므로 가치 투자 전략은 성장주 투자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투자자들이 가치주 투자 전략을 성장주에 그대로 적용하려다 실패를 겪습니다.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2023년과 2024년은 시장 전반의 흐름이 매우 좋았던 시기였습니다. 많은 종목들이 상승했고, 투자자들의 기대감 역시 높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장이 전체적으로 우상향하는 국면에서도, 일부 성장주의 주가는 계속해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른 대부분의 종목은 상승하고 있는데, 특정 성장주만 유독 떨어진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러한 현상은 대부분 **성장 둔화**에서 비롯됩니다. 성장주의 주가는 현재의 실적보다는 **미래의 성장 가능성**을 기반으로 형성됩니다. 다시 말해, 지금 당장 이익이 크지 않더라도 향후 급격한 성장이 예상되면, 주가는 그 기대를 미리 반영해 높은 수준에서 거래됩니다. 하지만 실제 실적이 그 기대에 못 미치게 되면, 시장은 곧바로 실망감을 반영하고 주가는 하락하게 됩니다. 즉, 성장주의 주가가 오르고 있다면 이는 **성장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시장의 평가**가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장주에 투자하면서도 정작 성장이 가속화되고 있는 종목은 매도하고,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는 종목을 오히려 더 매수한다면, 이는 투자 논리에 어긋나는 선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쉬운 예로는 2023년을 들 수 있습니다. 그해에는 성장이 가속화된 종목이 있었고, 반대로 성장세가 둔화된 종목도 있었습니다. 성장률이 가장 두드러졌던 종목은 NVIDIA였고, 반대로 성장성이 가장 크게 하락한 종목은 인텔(Intel)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인텔을 매수하기 위해 엔비디아를 매도한 투자자들이 있었고, 이런 선택은 결국 실패로 이어졌습니다.

이 사례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포트폴리오를 구성해두고 주가의 흐름을 관찰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유한 종목들이 가치주가 아닌 성장주라는 전제하에, 포트폴리오 관리 방법은 오히려 단순해집니다. 주가가 하락하는 종목은 매도하고, 주가가 상승하는 종목은 매수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주가가 오르고 있다는 것은 해당 기업의 성장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신호이며, 반대로 주가가 하락하는 것은 성장이 둔화되고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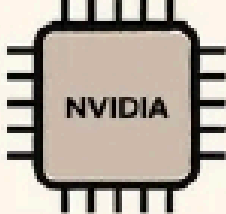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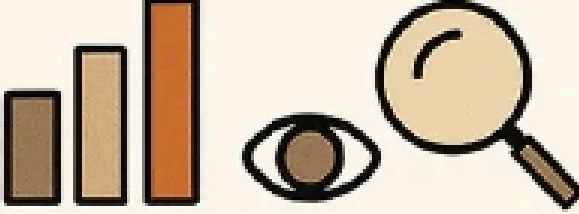
따라서 하락하는 종목에 미련을 두지 말고, 해당 종목의 비중을 점차 줄여가야 합니다. 그 자금을 활용해 주가가 상승 중인 종목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예를 들어, 그것이 NVIDIA든, 팔란티어이든, 애플이든 간에 상승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법입니다.

이처럼 성장이 가속화되고 있는 종목에 자금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포트폴리오를 운용한다면, 결국에는 매우 의미 있는 투자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Q. 『미국 주식 투자의 정석』에서 주식은 절대평가가 아닌 상대평가의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이를 어떻게 이해하고 적용하면 좋을까요?

A.
아마 많은 분들이 '주식은 절대평가가 아니라 상대평가다'라는 개념을 처음 접하셨을 것입니다. 저 역시 이번 책을 집필하면서 처음으로 정리한 개념인데요. 앞서 포트폴리오 구성과 분산 투자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드렸던 것과도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절대평가 vs 상대평가

절대평가적 사고	상대평가적 사고
<div>ONLY 한 종목만 보유</div> <div>단순한 사고 흐름 : "더 살까, 팔까?"</div> <div>판단 기준 : 개인의 확신</div> <div>감정적 집착 발생 => "이 종목은 무조건 된다"</div> <div>시장 흐름에 둔감해짐</div>	<div></div> <div>복합적 사고 흐름 : "가장 매력적인 종목은 무엇?"</div> <div>판단 기준 : 종목 간 비교 및 시장 심리</div> <div>객관적인 시각 => 시장 심리 관찰</div> <div>시장 흐름에 민감해짐</div>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하는 이유 중 하나는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중요한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로 사고의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예를 들어, 포트폴리오에 단 한 종목, 예를 들어 NVIDIA만 보유하고 있다면 투자 판단의 기준은 단순합니다. "이 종목을 더 살까, 팔까?"처럼 그 종목만 놓고 판단하는 절대평가의 사고로 흐르게 되죠. 그러나 만약 20개 종목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다면 자연스럽게 "이 중에 지금 가장 매력적인 종목은 무엇일까?", "어떤 종목의 투자 매력이 떨어졌을까?"라는 비교의 관점, 즉 상대평가로 시선이 바뀌게 됩니다.

이러한 상대평가 관점은 투자의 객관성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한두 종목에만 집중하게 되면 전체 시장 흐름에 둔감해지고, 때로는 특정 종목과 감정적으로 엮이는 현상, 즉 ‘사랑에 빠지는’ 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신념이 투자 판단을 지배하게 되고, 분석이나 데이터가 아닌 감정에 따라 투자 결정을 하게 됩니다. 결국 이는 투자 성공 확률을 낮추는 가장 위험한 패턴이 됩니다.

반면, 분산 투자된 포트폴리오를 운영하면 보다 객관적인 시각에서 각 종목의センチ먼트(시장 심리)를 관찰할 수 있습니다. 다른 투자자들은 이 종목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추세는 긍정적인가 부정적인가, 어떤 종목의 비중을 늘려야 할지 줄여야 할지 보다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맥락에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가는 내가 판단한 가치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시장이 판단하는 가치에 따라 움직입니다. 즉, “내 생각에 이 종목은 괜찮아 보여”라고 판단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이 종목을 좋게 평가하고 있는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 주식은 개인의 확신보다 집단의 눈치가 더 중요한 영역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다른 투자자들은 테슬라를 매수하려는가, 매도하려는가, NVIDIA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빠르게 읽어내는 눈치와 관찰력이야말로 주식 투자에서 성공할 확률을 높이는 요인입니다.

그리고 분위기를 조금 전환해서 하나 재미있는 비유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절대 상대평가를 해서 는 안 되는 대상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배우자입니다. 배우자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 시작하면, 그 순간 큰일 나는 거죠. 배우자와의 관계는 평생을 함께 하겠다는 의지와 약속으로 맺어집니다. 선택의 기준이 ‘객관적인 최고의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사랑과 신념, 책임감으로 지켜야 할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식은 다릅니다. 주식은 배우자가 아닙니다. 아무리 매수 당시에는 최고의 종목이라고 판단했다 하더라도, 시간이 흐른 뒤 더 나은 종목이 나타났다면, 과감하게 갈아탈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투자자들은 주식을 마치 평생 지켜야 할 대상처럼 여기며, 한 종목에 집착하고, 신념을 가지고 끌고 가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감정적으로 접근하면, 투자 성공 확률은 급격히 낮아집니다.

따라서 주식은 언제나 상대평가해야 합니다. 지금 내가 들고 있는 종목보다 더 좋은 종목은 없는지, 계속해서 비교하고 관찰해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더 좋아 보이는 종목이 있다면, 미련 없이 갈아탈 수 있는 현명한 투자자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Q. 미국 주식에 투자할 때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성해야 할까요?
매그니피센트 7이나 테크주 위주로 구성된 포트폴리오도 분산 투자라고
볼 수 있을까요?**

A.

먼저 질문 주신 것처럼, 매그니피센트 7 종목에 집중 투자하는 방식이 분산 투자냐고 묻는다면, 제 대답은 아니 옵니다. 왜냐하면 분산 투자의 본질은 변동성을 줄이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분산 투자가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어떤 종목이 하락할 때 다른 종목이 상승해 전체 포트폴리오의 균형을 맞출 수 있어야 합니다. 즉,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산들을 조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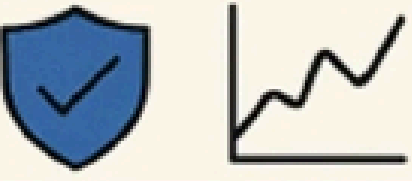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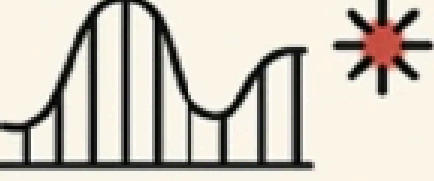
미국의 대표 지수인 S&P500을 예로 들어보면, 여기에 포함된 종목들은 11개 **섹터(sector)**로 나뉘어 있습니다. 이를 더 단순화하면, 일반적으로는 가치주, 경기 방어주, 경기 순환주, 테크주 등으로 구분됩니다. 진정한 의미의 분산 투자는 이처럼 다양한 섹터에 고르게 투자하는 방식입니다.

조금 더 나아가면, 자산 자체도 분산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 주식뿐 아니라 한국, 중국 주식도 일부 포함하고, 채권이나 금 같은 자산도 일정 비중으로 보유하는 것이야말로 포괄적인 분산 투자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20종목 모두가 미국 테크주입니다. 이걸 명백히 일반적인 의미의 분산 투자는 아니죠. 그런데도 저는 그렇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합니다. 그 이유는, 변동성을 감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분산 투자의 목적이 수익률을 올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개인의 성향과 리스크 감내력에 따라 포트폴리오 구성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의 성향에 맞는 포트폴리오 전략 선택

SPY – 안정형 전략	QQQ – 성장형 전략
 <p>S&P 500 지수 추종 꾸준하고 안정적인 수익 미국 11개 섹터에 고른 투자 광범위한 분산투자</p>	 <p>나스닥 100 지수 추종 높은 변동성 + 높은 수익률 금융주는 아예 제외 테크주 중심의 성장주</p>

**중요한 것은 수익률이 아니라,
나에게 맞는 전략을 선택하는 것!**

예를 들어 SPY와 QQQ라는 ETF를 비교해보겠습니다.

- SPY는 S&P500 지수를 추종하는 ETF로, 미국의 11개 섹터에 고르게 투자합니다. 말 그대로 광범위한 분산 투자입니다.
- QQQ는 나스닥100 지수를 추종하는 ETF로, 대부분이 테크주 중심의 성장주로 구성돼 있습니다. 심지어 금융주는 아예 제외되어 있죠.

이 두 ETF의 차이는 분명합니다.

- SPY는 변동성이 낮고, 보다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사람에게 적합합니다.
- 반면, QQQ는 변동성이 크지만 장기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기록해왔습니다.

실제로 지난 5년, 10년, 20년 동안의 데이터를 보면 QQQ가 항상 SPY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위험도 컸고, 감정적 흔들림도 더 자주 찾아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맞는 전략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조금만 주가가 하락해도 감정적으로 동요하고, 주식을 전량 매도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안정적인 SPY와 같은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반면, 어떤 사람들은 시장의 큰 변동성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장기적인 관점으로 주가의 상승을 인내할 수 있습니다. 저 역시 그런 부류에 속합니다. 주가가 떨어져도 일상생활이나 가족과의 관계가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테크주로만 구성된 20종목 포트폴리오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포트폴리오 구성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리스크의 수준은 어디까지인가,
- 나는 감정적 반응 없이 시장을 대할 수 있는 사람인가,
- 또는 나는 월급을 받는 직장인인가, 은퇴자인가,

이러한 요소들에 따라 전략은 천차만별로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투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100년 이상의 시계열 데이터를 보며 100년이라는 시간 속에서 S&P500이나 나스닥 지수가 일관되게 우상향해왔다는 역사적 사실은 저에게 매우 신뢰할 수 있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생각해보면, 100년 전 우리나라에는 주식시장이라는 개념조차 존재하지 않았던 시기였습니다. 그에 비해 미국은 이미 그때부터 금융 시장이 형성돼 있었고, 그 오랜 시간 동안 시장은 여러 위기와 침체를 겪으면서도 결국 **지속적인 성장을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그런 장기적 흐름을 기반으로 미국 시장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것 자체에 대해 큰 의심이 없었습니다.

특히 저는 기술주, 테크주 중에서도 테슬라를 개인적으로 매우 선호합니다. 아마 많은 한국 투자자분들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실제로 국내 미국 주식 투자자들 사이에서 가장 선호도가 높은 종목 1위가 바로 테슬라일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정말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듯, **테슬라 투자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가장 많이 들었던 말 중 하나가 “테슬라 투자하기 너무 힘들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만큼 테슬라는 **변동성이 극심한 종목**입니다.

예를 들어, 테슬라는 수시로 전고점 대비 MDD(Maximum Drawdown, 최대 낙폭)가 50%를 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심지어 3분의 2 토막, 3분의 1 토막이 나는 일도 자주 있었고, 이런 수준의 심한 낙폭을 견뎌야만 비로소 얻을 수 있는 보상이 존재하는 주식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 변동성을 견딜 수 있다면, 테슬라만큼 매력적인 주식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그런 심리적 압박과 감정적 스트레스가 힘든 분들이라면, 저와 같은 접근 방식보다는 『미국 주식 투자의 정석』에서 강조하는 원칙적인 투자 전략에 더욱 귀 기울이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투자 조언이라는 것은 **보편적이지 않습니다**. 같은 조언이라도 누군가에게는 정확히 맞아떨어질 수 있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전혀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바로 투자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훌륭한 조언이라도, 그 조언이 나에게 적합한지를 스스로 판단하는 것, 그 책임은 결국 투자자 본인에게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투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스스로를 정확히 아는 것, 그리고 자신의 투자 성향에 맞는 전략을 선택하는 것이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Q. 초보 투자자들이 미국 주식에 처음 진입할 때 흔히 놓치는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A.

네, 한국 투자자들은 특히 주식을 자주 사고파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크신 편입니다. 조금 과장해서 말하자면, 매매를 자주 하는 것에 죄책감을 느끼는 분들도 있고, 잦은 매매를 하는 투자자를 저급한 전략을 구사하는 사람처럼 오해하거나 폄하하는 분위기도 존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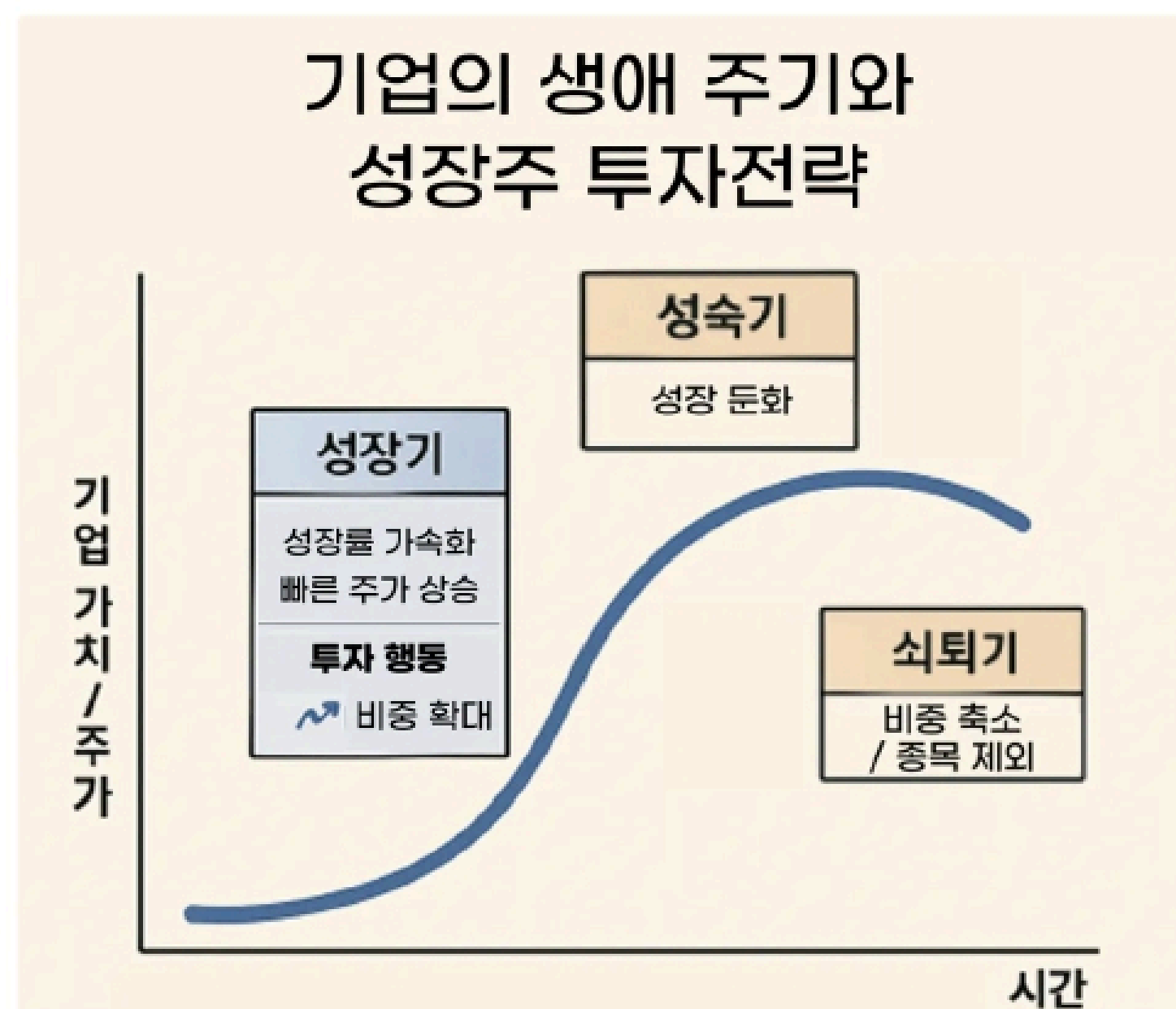
저 역시 '미주은' 채널을 운영하면서, 보유 종목을 정리하거나 비중을 줄였다고 이야기하면 종종 악성 댓글을 받기도 합니다. 이런 반응은 우리가 워렌 버핏이나 벤저민 그레이엄 같은 투자의 대가들로부터 배워온 '장기 투자'의 철학에 깊이 영향을 받아왔기 때문일 것입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주식은 절대 팔아선 안 된다고 굳게 믿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간과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이런 투자 조언들은 대부분 개별 종목이 아닌 시장 지수를 대상으로 한 조언이라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시장을 예측하지 마라"는 조언은 저도 100% 동의합니다. 실제로 시장 지수의 움직임을 예측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SPY나 QQQ에 정기적으로 적립식 투자를 한다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개별 종목에 투자하는 경우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때도 무조건 장기 보유 전략을 따른다면, 심각한 손실을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종목이 장기적으로 우상향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역사적으로 사라진 기업들도 많고, 여전히 10년 전 주가를 회복하지 못한 종목들도 수도룩합니다. 예를 들어 닷컴 버블 때 정점을 찍고도 아직 회복하지 못한 종목들이 지금도 존재합니다.



기업 역시 인간처럼 생애 주기를 가집니다.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그리고 쇠퇴기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장주에 투자하는 투자자라면, 자주 리밸런싱을 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성장률이 가속화되고 주가가 상승하는 기업, 즉 여전히 성장기에 있는 종목의 비중은 늘려야 하고, 반대로 성장이 멈추고 하락세로 접어드는 종목은 과감히 줄이거나 포트폴리오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인텔은 겉보기엔 여전히 테크주이지만, 실제로는 성장세가 둔화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주식을 자주 사고파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있지만, 실제로 개별 종목을 수시로 사고 팔면서 연평균 10% 이상의 수익률을 장기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SPY와 QQQ, 두 대표적인 미국 ETF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SPY는 S&P500 지수를 추종하는 ETF로, 미국 시가총액 상위 500개 기업에 분산 투자합니다. QQQ는 나스닥100 지수를 추종하며, 테크 중심의 상위 100개 종목을 담고 있습니다. 이들은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리밸런싱을 수행하며, 1년에 한 번 이상 종목 구성 자체를 변경하고 있습니다.

리밸런싱의 기준은 단 하나, 바로 시가총액입니다. 주가가 상승해 시가총액이 커진 종목은 더 많이 편입하고, 하락한 종목은 비중을 줄이며, 일정 기준 이하로 하락한 종목은 아예 지수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SPY는 시가총액 기준 상위 500개 기업에 투자하는데, 순위 밖으로 밀려난 기업은 자동으로 제외됩니다. QQQ 또한 마찬가지로, 상위 100위에서 벗어난 기업은 포트폴리오에서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개인 투자자들은 이와는 정반대의 행동을 합니다. 주가가 오른 종목은 더 이상 오르지 않을 것 같아 매도하고, 하락한 종목은 싸졌다고 판단해 추가 매수합니다. 바로 이 점이 개인 투자자들이 지수 수익률을 이기지 못하는 핵심 이유입니다.

정리하자면, 시장이 전반적으로 큰 폭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을 때는 일정 부분 주식을 매도하고 현금 비중을 높이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는 흔히 말하는 역발상 투자의 개념으로, 시장이 과열되고 버블 조짐이 보일 때는 향후 조정이나 하락장을 대비하기 위해 수익 실현과 리스크 관리에 집중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반대로, 시장이 전반적으로 과도하게 하락하고 조정이 깊어진 시기에는, 오히려 보유 중인 현금을 활용해 우량 주식의 비중을 확대해야 합니다. 지금처럼 시장이 전반적으로 눌려 있는 상황이라면, 기회를 포착해 주식의 보유량을 늘리는 전략이 합리적인 것이죠. 이는 워렌 버핏이 말한 “다른 이들이 탐욕을 부릴 때 두려워하고, 두려워할 때 탐욕을 가져라”는 조언과 정확히 맞닿아 있습니다.

다만, 이 같은 원칙은 시장 전체나 지수에 적용되는 전략이지, 개별 종목에는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예컨대 시장이 하락했다고 해서 실적이 부진한 개별 종목까지 무조건 매수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판단입니다.

따라서 SPY나 QQQ처럼 실적이 지속적으로 개선되며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 종목의 경우, 투자 비중을 점진적으로 늘려야 하며, 반대로 실적이 악화되고 주가가 하락하고 있는 종목은 비중을 줄이는 것이 옳은 방향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투자할 경우, 두 가지 중요한 이점을 얻게 됩니다.

- 첫째는 투자 리스크의 최소화입니다. 예를 들어, 인텔처럼 장기적으로 하락세를 지속하는 종목은 포트폴리오에서 과감히 제거할 수 있게 됩니다.
- 둘째는 NVIDIA나 팔란티어처럼 우상향하는 종목에 더 큰 비중을 실어줌으로써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Q. 초보 투자자들이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차트 지표나 흐름이 있을까요?

A.

많은 분들이 차트나 기술적 분석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한국 투자자들 중에서는 차트를 분석하는 투자자들을 폄하하거나, 기술적 분석은 맞지도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물론 차트 분석은 100% 맞는 예측 도구가 아닙니다. 잘해야 10번 중 6~7번 정도 적중할 수 있을 정도죠.

하지만 이 점이 오히려 중요합니다. 실제로 미국 월가에서 활동하는 애널리스트만 약 9천 명에 달하는데, 'TipRanks'라는 웹사이트에서 이들의 추천 성공률을 순위별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상위 10명의 애널리스트조차도 성공률이 80%를 넘지 못합니다. 대부분 70% 수준에서 머무르는데, 이것만으로도 최고의 성과로 평가받습니다.

결국 우리가 목표로 해야 할 것은, 어떻게든 50% 이상의 승률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펀더멘털, 거시경제, 시장 뉴스, 유튜브, 차트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확률을 조금이라도 높여야 합니다. 그 중 하나가 차트 분석입니다. 차트는 과거 주가의 움직임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도구로, 이를 통해 현재의 추세를 파악하고 미래를 예측해보려는 시도입니다. 물론 완벽한 예측은 어렵지만, 추세가 이어지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활용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공을 던졌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공은 일정 궤도를 따라 올라갔다가 정점을 찍고 다시 하강합니다. 이처럼 주가도 상승과 하락이라는 궤적을 그리는데, 과거의 흐름을 통해 현재가 어느 지점에 와 있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예상하지 못한 외부 요인으로 인해 갑자기 추세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날아가던 공도 옆에서 툭 치면 방향이 바뀌듯, 주식도 예상치 못한 뉴스나 사건—즉, 카탈리스트(Catalyst)—에 의해 추세가 전환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카탈리스트가 등장하기 전까지는 기존 추세가 유지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차트 분석은 의미 있는 도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올라가던 주가는 계속 오르고, 떨어지던 주가는 계속 하락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로 인해 차트는 최소한 50% 이상의 확률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유용한 도구가 됩니다.

그럼에도 많은 분들이 차트 분석을 어렵게 느끼는 이유는, 전문용어나 복잡한 그래프들 때문입니다. 유튜브나 서적을 통해 접하는 차트 해석은 종종 초보자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전달되기도 하고, 그래서 스스로 “나는 못하겠다”고 생각하며 아예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차트 분석은 처음부터 모든 것을 다 알 필요는 없습니다. 기초적인 것부터 하나씩 익혀나가는 방식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추세선을 직접 그어보는 것부터 시작해보면 좋습니다. 주가는 오르내림을 반복하지만, 일정한 선을 그어보면 의외로 주가가 그 선에 닿을 때마다 반등하거나 저항하는 모습이 자주 나타납니다. 스스로 선을 그어보고 추세를 파악하는 것만으로도 차트에 대한 이해는 크게 향상됩니다.

그리고 차트 분석에서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요소 중 하나가 바로 이동 평균선입니다. 저는 주가가 오르는 종목은 더 사고, 주가가 떨어지는 종목은 줄이라고 늘 말씀드리는데, 이는 결국 추세가 좋은 종목을 강화하고, 추세가 나쁜 종목은 줄이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문제는, 그 ‘추세’를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주가가 하루 이를 올랐다고 해서 추세가 좋아졌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추세란 장기적으로 이어지는 흐름이기 때문에 이를 파악하려면 기술적 지표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대표적인 지표로는 이동 평균선(Moving Average)이 있습니다.

- 20일 이동 평균선은 단기 추세,
- 60일 이동 평균선은 중기 추세를 나타냅니다.

만약 한 종목의 20일 이평선이 60일 이평선 위에 있다면, 그 종목은 상승 추세에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20일 이평선이 60일 이평선 아래로 떨어지는 시점이라면, 이는 하락 추세로의 전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평선들이 교차하는 현상을 골든크로스(상승 전환), 데드크로스(하락 전환)라고 부릅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시장 점유율(Market Share)에 집중합니다. 물론 시장 점유율 1위인 기업에 투자하는 것은 좋은 전략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시장 침투율**, 즉 해당 제품이나 기술이 시장에 얼마나 보급되었는가입니다. 이 수치가 낮을수록 성장 가능성은 더 크고, 기업의 주가 상승 여력도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의 테슬라(Tesla)가 2010년의 애플과 매우 유사한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테슬라는 전기차 시장에서 점유율이 높고, 여러 신사업—자율주행, 로보택시, 가정용 로봇(휴머노이드)—을 펼쳐가고 있지만, 이 모든 사업 분야의 **시장 침투율은 여전히 매우 낮습니다**. 아직 전기차를 모는 사람보다 그렇지 않은 사람이 훨씬 많고, 자율주행은 대부분이 개념은 알고 있지만 실생활에서는 체감하기 어려운 단계입니다.

이와 같은 논리는 NVIDIA에도 적용됩니다. 최근 분기 실적에서 NVIDIA는 **무려 90%에 달하는 매출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인공지능(AI) 반도체 시장에서는 **80% 이상의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논란이 되는 지점은 **시장 침투율**입니다. 과연 지금이 포화 상태인지, 아니면 이제 막 시작 단계인지에 대한 해석이 엇갈리는 것이죠.

저는 지금이 **2010년의 애플과 같은 시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인공지능은 이제 막 훈련(training)을 넘어, 추론(inference)의 단계로 진입했고, 실제 활용 사례는 이제 겨우 증가하는 초기 단계이기 때문입니다. AI 기술을 접하는 일반 사용자나 기업의 수를 생각해 보면, 여전히 대다수가 AI 기술을 직접적으로 활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아직 AI 기술의 **시장 침투율은 매우 낮습니다**.

대표적인 AI 활용 사례인 자율주행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데이터를 기반으로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AI 에이전트**의 대표 주자인 자율주행 기술도, 지금은 일부 사용자만 체험하고 있는 수준이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마치 스마트폰이 그랬던 것처럼 **AI 기술 역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상에서 사용하게 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그 기술을 뒷받침하는 NVIDIA의 칩 판매량은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성장주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단연 **시장 침투율이 낮은 기업**을 찾는 일입니다.

한마디를 덧붙이자면, NVIDIA 주가 하락의 이유 중 하나는 최근 등장한 딥시크(Deepsick) 같은 **비용 효율적인 인공지능 모델**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앞으로 인공지능을 구현하는 데 필요한 GPU 수요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시장에 퍼졌습니다. 지금까지는 빅테크 기업들이 인공지능 개발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했고, 그 과정에서 가장 큰 수혜를 입은 기업이 NVIDIA였지만, 이러한 흐름이 변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 상황을 바라보는 데 참고할 수 있는 '제본스 패러독스(Jevons Paradox)'라는 논리가 있습니다. 1차 산업혁명 당시 증기기관이 등장하면서 석탄 사용량에 변화가 생긴 것이 그 예입니다. 증기기관은 초기에는 효율이 낮았지만, 점점 기술이 개선되면서 적은 석탄으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사람들은 석탄 수요가 줄어들 것이라 예상했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의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증기기관의 효율성이 높아지자, 그 사용 범위가 급격히 확산되었기 때문입니다. 광산뿐 아니라 증기선, 증기기관차, 공장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증기기관이 사용되기 시작하면서, 전체적인 석탄 수요는 오히려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원리가 현재 NVIDIA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딥시크처럼 GPU를 덜 사용하는 AI 모델이 등장하면서 단일 모델 당 GPU 수요는 줄어들 수 있지만, 인공지능 기술이 더 많은 산업과 일상에 확산되면 GPU의 전체 수요는 오히려 증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얼마나 많은 AI 모델과 애플리케이션이 개발되고, 얼마나 많은 개인과 기업이 AI를 활용하게 될지에 포커스를 맞춰보면, NVIDIA의 수요는 지속적으로 올라갈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Q. 유튜브 '미주은' 채널의 썸네일은 유독 담백하고 정직한 느낌이 강합니다. 일반적으로 자극적이고 눈길을 끄는 썸네일이 많은 유튜브 환경 속에서 이를 고수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A.

예, 이 부분은 제 개인적인 경험과도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2020년 처음 유튜브를 시작했을 당시에는 정말 순수하게, 제가 투자하고 분석한 내용을 있는 그대로 공유하자는 마음이었습니다. 기업의 가치를 분석하고, 그에 대한 리서치를 정리해 콘텐츠로 만들며 초심을 지키고자 했던 시기였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구독자가 점점 늘고, 유튜브를 통한 수익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마음가짐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어떻게 하면 더 많은 클릭을 유도할 수 있을까’, ‘어떤 콘텐츠가 조회수가 잘 나올까’**를 먼저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자연스럽게 자극적인 썸네일과 제목도 사용하게 되었고, 콘텐츠 역시 리서치 중심이 아닌, 흥행을 위한 방향으로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저 자신도 과거에 “10년 후 10배 오를 종목” 같은 시리즈 콘텐츠를 제작했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많은 후회가 남는 시기입니다. 원래는 투자에 충실하고, 연구를 통해 얻은 인사이트를 공유하려고 했던 채널이었는데, 어느 순간 ‘유튜브 콘텐츠를 위해 투자하는’ 이상한 구조로 전도돼버렸습니다.

그 결과, 투자 성과도 나빠졌고, 유튜브 채널의 성장도 정체를 겪게 됐습니다. 심지어 그 당시에는 유튜브를 그 만두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까지 할 정도로 혼란과 후회가 컸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다 2022년 말부터 마음을 다시 다잡고, 초심으로 돌아가기 위한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유튜브는 잠시 접어두고, 오로지 투자에 집중하자, 투자로 수익을 내는 과정을 제대로 만들고, 그 과정에서 얻은 결과와 인사이트를 있는 그대로 공유하면 자연스럽게 유튜브도 잘 될 것이라는 마음으로 방향을 전환했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자극적인 썸네일이나 제목은 의도적으로 피하고, 지금처럼 담백하고 정직한 톤으로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Q. 매일 10시간 이상 투자 공부를 해오신 작가님의 경험을 토대로, 초보 투자자들이 단편적인 정보 습득만으로 투자를 시작하는 현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A.

저는 지난 20년 넘게 해외에서 거주하면서 한 가지 확신하게 된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한국인만큼 똑똑하고 성실하게 투자에 임하는 민족은 드물다**는 점입니다. 한국의 투자자들은 책을 읽고, 강의를 듣고, 유튜브 채널까지 활용하며 정말 열심히 공부합니다. 이처럼 부지런하고 치열하게 노력하는 태도는, 머지않아 한국 투자자들을 세계 최고의 투자자로 이끌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더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경험**입니다. 아무리 지식과 열정이 뛰어나더라도, 투자에서는 결국 직접 경험한 사이클이 쌓여야 실력이 완성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결과를 내려 하기보다는, 장기적으로 꾸준히 시장에 참여하면서 배우는 태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사실 2020년 이후에만 해도 미국 증시는 두 번의 베어마켓과 세 번의 급등장을 겪었습니다. 이런 사이클이 반복된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언제나 다음 기회는 온다는 메시지를 줍니다. 지금의 결과에만 집착하기보다는, 다음 장세에는 더 잘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한 사이클씩 경험을 쌓아가면서 성장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투자가 **즐거워야 하고, 재미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억지로 인내하고 고통을 견디는 방식보다는, **행복하게 투자하는 여정**, 다시 말해 ‘행투’가 ‘성투’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식 투자란 100m 달리기보다 마라톤 같은 여정입니다. 평생을 두고 천천히, 꾸준히 즐기며 해야 할 일이라는 거죠.

그리고 실력을 기르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매일 기업 관련 기사를 읽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는 스토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기업의 역사, 현재, 그리고 미래가 한 편의 드라마처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기사를 자주 읽다 보면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다음 스토리를 예측하는 능력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 **아마존**은 온라인 서점에서 시작해 이커머스 1등 기업이 되었고, 결국 클라우드 시장의 최강자가 되었습니다. **테슬라**는 전기차 하나로 전 세계를 뒤흔들었고, **메타**는 소셜미디어에서 메타버스로, 다시 AI와 스마트 안경 기업으로 변신 중입니다. 그리고 **NVIDIA**는 게임용 GPU 기업에서 인공지능 시대의 핵심 인프라 기업으로 올라섰습니다. 이런 기업들의 흐름을 따라가다 보면, 그 자체가 흥미로운 드라마이고, **투자의 인사이트**가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더불어 다양한 분야의 기업을 살펴보는 것은 단순히 분산 투자 효과를 넘어서, **지식의 확장**으로도 이어집니다. AI, 자율주행, 이커머스, 스마트 기기 등 각 산업의 흐름을 배우게 되고, 그러다 보면 투자가 단순한 수익 활동이 아닌, **지적 즐거움**이 되는 순간이 옵니다.

결국, 투자 실력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매일같이 기업 스토리를 읽고, 그 흐름을 지켜보면서 다음 이야기를 상상해보는 것, 그 과정 끝에 투자의 인사이트가 넘쳐나는 베테랑 투자자가 되어 있을 거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Q. 투자 인사이트를 휘발성 정보로 끝내지 않고,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A.

실제로 제가 유튜브 채널 *M/주은*을 운영하면서 가장 크게 체감한 부분이 바로 그 점입니다. 제가 지난 4~5년 동안 매일 10시간 이상 주식 공부를 해오고 있는데, 만약 같은 시간을 공부했더라도 유튜브를 하지 않았더라면 지금만큼 투자 수익률을 만들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보면, 제 대답은 '아니다'입니다.

유튜브를 운영한다는 것은 단순히 공부하고 정보를 습득하는 것을 넘어, 그 내용을 직접 말로 정리하고, 설명하고, 구조화해서 전달하는 과정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저 역시도 수많은 인사이트를 새롭게 얻게 되었고, 생각이 훨씬 더 체계적으로 정리되었으며, 판단력 또한 크게 향상되었다고 느낍니다.

결국 가장 많이 혜택을 받은 사람은 바로 저 자신이었습니다. 구독자분들께서도 물론 많은 수익을 얻으신 분들이 많지만, 그 과정 속에서 저는 매번 제 생각을 다듬고 내면화하는 기회를 얻었기 때문에, 스스로의 투자 실력이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설명하는 것은 가장 궁극적인 학습법이라는 말에 깊이 공감합니다. 실제로 어떤 기업, 예를 들어 NVIDIA, 팔란티어, 테슬라에 대해 5분, 10분 이상 쉬지 않고 설명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단순히 정보를 아는 수준이 아니라, 진짜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투자 공부를 하시는 분들께는 꼭 주변 사람에게 말로 설명해보는 연습을 권하고 싶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 본인의 인사이트가 깊어지고, 자연스럽게 정보가 내면화되어 진짜 내 것이 되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